

韓國語 한국어

2020年 四旬節愛の献金 趣意書

사순절 ‘사랑의 헌금’ 취지서

작년 일본에 오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3년에 취임하신 이래, ‘누구하나 배제되지 않는 세계’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들고 계십니다.

도쿄돔에서의 5만명 이 모인 미사에서 교황님께서, “우리들은 모든 생명을 지키고, 그 삶을 증거하기를 요청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하고 근본적인 가치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에 더해, 그와 같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과 배려, 관대함과 있는 그대로 귀를 기울이는 자세, 이러한 자세를 가지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눈 앞에 있는 생명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동북지방의 지진피해자 분들과의 만남에서는, “식량, 의복, 안전한 장소와 같은 필수품이 없다면, 인간존엄이 유지되어지는 생활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하신 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부흥’을 할 수 있는 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재출발 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부흥을 돕는 이 뿐 아니라, 전망과 희망을 회복시켜 주는 친구나 형제자매와의 만남도 불가결합니다”라 하시고, 서로 돕는 인간관계가, 삶의 희망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가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장소임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주장해 오셨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학대당하는 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이, 슬퍼하는 이에게 향하여 집니다. 뿐만아니라 동시에, 하느님의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향하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느님은 배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자비로서 모든이를 끌어 안으시는 인자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항상, 하느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존재로서, 배제하는 것이 아닌 상냥함 안에 모든 것을 끌어 안는 존재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서로 돕고, 산다는 희망을 낳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인자하심, 자비를 많은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때입니다. 서로 돕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삶의 때입니다. 모든 생명에 삶의 희망을 구체적으로 날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사순절에 ‘기도와 절제와 사랑의 실천’이라는 세 가지 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앙을 다시 되돌아 보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헌금은, 학생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사십일 동안,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헌금에 협력 해 주셔서, 교회의 사랑의 실천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긴급재원조에 머물지 않고, 국내외의 ‘생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소수민족의 어린이들의 교육지원과 여성의 자립지원 등, 긴 시간의 지원을 요하는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서도, 사순절에 기부되어지는 헌금은 꼭 필요합니다. 카리타스 재팬이 행하는 지원은, 물론 평소의 여러분의 모금에 의해 지탱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연간 헌금의 상분의 일은, 이 사순절헌금에 의해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사순절에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때로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싸여, 풍성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산다는 희망을 낳기 위하여, 사순절헌금에 부디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2월26일 재의 수요일에
카리타스재팬 책임주교 타르치시오 키쿠치 이사오